

1. 동물에게 물렸을 때 (개 등에 물렸을 때)

동물에게 물린 경우 대부분에서 심각한 출혈은 발생하지 않으나, 2차 감염, 인대, 근육 또는 혈관, 신경 등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.

대부분의 동물교상은 개에 의해 발생하며, 그 외 고양이, 가축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다. 개의 침에는 약 60여 종의 세균이 존재하여 광견병 같은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.

표피상처 (할퀴상처)

-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비누로 5~10분간 깨끗이 씻는다.
- 말린 후 접촉드레싱이나 작은 알코올드레싱으로 덮는다.



깊은상처

- 직접 압박을 하거나 물린 부위를 들어올려서 지혈한다.
- 상처를 소독된 거즈나 깨끗한 패드로 덮고 붕대를 감는다.
- 병/의원을 방문하여 경우에 따라 다음의 처치를 받도록 한다.
- 세척, 항파상풍 주사, 붕합술 등을 시행하는데 파상풍 예방 접종
경력과 시기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

2. 뱀에게 물렸을 때

뱀에게 물렸을 때 응급처치

1. 독사여부 확인

- 뱀에 물렸을 때의 상처자국을 보고 독사여부를 확인한다.
- 머리가 삼각형이고 물린 앞쪽에 두 개의 이빨 자국이면 독사



독사



일반뱀



2. 환자 안정

- 환자를 눕혀서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한다.

3. 압박하여 묶기

- 물린 곳에서 5~10cm 위를 적당한 압력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않게 한다.



4.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

- 몸을 고정시키고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한다.

♣ 주의사항

- 1) 얼음찜질은 권장되지 않는데 이는 독소를 비활성화 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, 동상의 위험성에 의한 조직괴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.
- 2) 피부 절개 및 흡입 :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독소를 빨아내기 위하여 물린 부위를 칼로 절개하는 것은 오히려 근육, 혈관, 신경 등의 다른 구조물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.
- 3) 입으로 흡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. 이미 언급했듯이 절대적 위급상황이 아니면 입으로 빨아서 독을 제거하는 행위는 첫째 입을 통하여 독이 체내로 흡수될 수 있고, 둘째 입안의 각종 세균에 의한 물린 상처 부위의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으로 이 행위는 권장되지 않는다.
- 4) 전기나 불로 물린 부위를 지지는 행위는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.
- 5) 압박대 사용은 절대적 위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권장하지 않는 행위이다. 대부분의 환자에서 압박대를 너무 강하게 조여 오기 때문에 2차적 합병증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.
- 6) 민간요법으로서 담배, 된장 등 상처에 바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. (2차 세균감염의 위험) 오히려 이러한 처치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.
- 7) 뱀에 물린 환자는 구토, 복통 및 의식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입으로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. 음식과 음료수를 주면 안 된다. 특히 술은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독이 몸 안에 빨리 퍼지게 하므로 절대 금기이다.

3. 화상응급처치 방법



- 1) 화상부위를 상온의 차가운 물에 30분정도 충분히 식혀주세요.
- 2) 물집이 생겼다면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터트리지 마세요.
- 3) 화상 부위에 직접적으로 얼음을 대는 것은 위험해요.
- 4) 환부가 넓다면 환부를 심함과 동시에 119를 요청하셔서 화상병원에 방문하세요.

4. 벌에 쏘이는 경우

벌에 쏘일 경우 초기 증상으로는 쏘인 부위의 가려움, 통증 및 붓는 등의 국소적 현상이 대부분이다. 그러나 가장 심각한 증상은 벌독에 의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(전신적 과민성 반응)이 발생했을 때이다.

전신적 과민성 반응

- 약 5%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- 증상 : 몸이 붓고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것, 이외에 피부가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는 증세, 불안감, 두통, 어지럼증, 구토, 복부 통증, 호흡곤란, 경련, 의식 저하 등의 쇼크의 증상
- 증상 발현 시간 : 독소에 노출되고, 수 분에서 1시간 내의 발생
- 과민반응은 일단 시작하면 매우 빠른 경과를 밟으므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.
- 전신적 과민성 반응에 의한 사망 원인 중 60~80%는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기도가 부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사망하는 질식사로 보고되고 있다.
- 두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으로는 혈관 확장에 따른 쇼크사이다. 즉시 응급조치를 하면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.

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

1. 벌침찾기

- 빨강계 부어오른 부위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벌침을 찾는다.

2. 벌침 제거

-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 침을 제거한다.

3. 통증(부기) 완화

- 상처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대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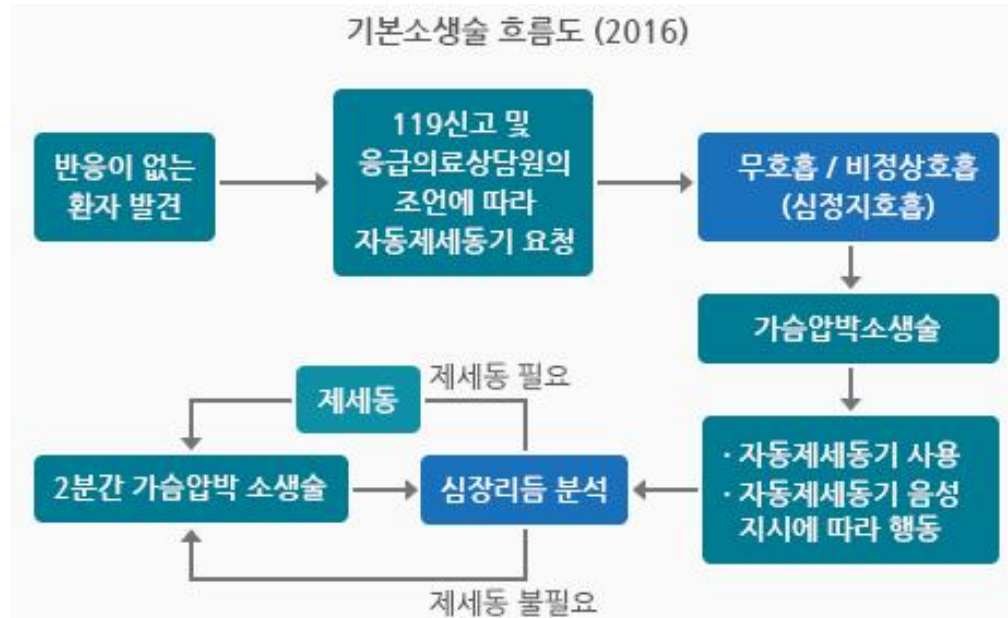


♣ 주의사항

- 1) 집게, 핀셋 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침의 끝부분을 집어서 제거할 경우 독주머니를 찌는 행위가 되어 오히려 벌침 안에 남아 있는 독이 더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.
- 2) 전신성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에 질식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도록 한다.
- 3) 야외에서는 음료수의 뚜껑을 열어둔 상태로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.

5.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(AED)

심폐소생술(CPR)이란?



심폐소생술(CPR) 방법

1. 반응 확인 - 의식 확인

환자 어깨를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괜찮아요? 하고 의식을 확인해요.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

2. 119 신고 + AED 요청

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에게 "AED 가져와 주세요!"라고 요청하세요.

(심폐소생술은 한 명보다 둘 이상일 때 성공률이 높아요.)

3. 가슴압박 시작

가슴 중앙(흉골)에 손을 포개고 분당 100~120회 속도, 5~6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. 반드시 '풀어주는 시간'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용적이 제대로 회복돼요.

4. AED 사용 및 지속적인 압박

AED가 도착하면 전원을 켜고 안내 음성대로 패드를 부착합니다. 쇼크 필요 시 AED가 자동으로 알려주며, 쇼크 후 즉시 다시 가슴압박을 시작해야 해요. AED가 없거나 구조대 도착 전까지 절대 압박을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심폐소생술(CPR) 순서



① 확인

양쪽 어깨 두드리기 + 큰 소리로 괜찮은지 의식확인



③ 압박

30회 가슴압박(분당 100~120회 속도 / 5cm 깊이),
복장뼈 아래쪽 1/2지점

② 신고

119 신고 > 주변에 심장 전기충격기(AED) 요청 >
호흡 확인(10초 이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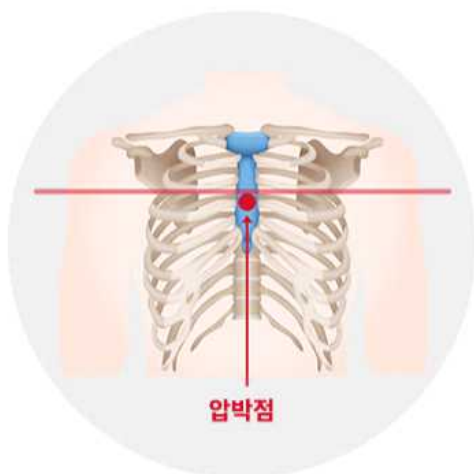
④ 호흡

2회 인공호흡
(이마 젖히고 코 잡기 / 호흡 중간에는 코 잡은 손 놓기)

※ 단, 인공호흡은 교육을 받았고 시행의지가 있다면 실시

가슴압박 30회 + 인공호흡 2회 반복 (환자가 의식을 찾을 때까지)

심폐소생술 (CPR) 압박 위치 및 방법



압박점

➡ 가슴 압박 위치



손뒤꿈치

➡ 두손을 겹쳐 손뒤꿈치로 압박

출처 :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처치방법, 소방청 안전정보